

'나무야 안아줄게' ... 전주 가로수, 털 옷 입는다

전주자봉센터, 한옥마을서 '트리허그' 진행 형견·인형 재활용해 만든 나무 옷 입혀

천만그루 정원도시 조성에 나선 전주시가 전주한옥마을 가로수에 자원봉사자의 손길로 만든 따뜻한 털옷을 입혔다.

사단법인 전주시자원봉사센터(이사장 황의욱)는 13일 전주한옥마을에서 뜨개질 재능봉사단체인 한뫼봉사단 회원 100여명과 함께 가로수의 병충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고 심미적으로 뛰어난 겨울 나무옷을 만들어 입혀주는 '2019 나무야 안아줄게 트리허그'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가로수에 입혀진 나무옷은 전주시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행복한가게 △원불교봉공회전북지회 △완산구해바라기봉사단 △덕진구사랑의울타리봉사단 △느루걸음봉사단 △알뜰맘봉사단 △킴트봉사단 등 7개 봉사단체의 뜨개질 재능기부 봉사자들로 구성된 '한뫼봉사단'이 주축이 돼 못 쓰는 형견과 인형 등을 재활용해 만든 것들이다. 이들은 지난 4월 간담회를 시작으로

로 '나무야 입히기' 기획에서 디자인 구상, 손수 제작에 이르기까지 자원봉사자들이 앞장서고 참여하여 시민의 재산인 가로수를 돌보기로 했다.

특히 참여자가 늘면서 '트리허그 존'이라 불리는 대상지도 지난해 첫마중길에 이어 올해는 전주한옥마을까지 확대했다. 이날 한옥마을에 모인 봉사자들은 정성스레 따온 겨울 나무옷 100여벌을 태조로 가로수에 입고 뜨개질로 마무리함으로써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사랑의 온기를 전달했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나무옷 하나 하나에 참여 자원봉사자 이름과 단체를 새겨줌으로써 봉사자들의 그간의 노력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시민을 위해 값지게 쓰인 재능기부에 대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했다.

이에 앞서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지난 7일에도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13일 전주한옥마을에서 뜨개질 재능봉사단체인 한뫼봉사단 회원들과 함께 가로수의 병충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고 심미적으로 뛰어난 겨울 나무옷을 만들어 입혀주는 '2019 나무야 안아줄게 트리허그' 행사를 진행했다.

전주 앞 첫마중길 가로수에 나무옷 150여벌을 입히는 트리허그 행사를 진행, 주변상가와 첫마중길을 찾는 방문객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기도 했다.

황의욱 전주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안아주는 것"은 몸과 마음을 녹이는 것은 사람이 하는 가장 따뜻한 일인 것 같다. 봉사자들이 한 해 동안 형성색색 정성들여 털실로

옷을 때 '안아준 것'은 여기 서있는 겨울나무뿐 아니라, 여덟 이곳 전주를 찾는 모든 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준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가을, 삼천동 막걸리로

16일 전주 막걸리아리랑 김치쓰리랑 문화축제

전주 막걸리의 메카인 삼천동 막걸리 거리에서 막걸리와 전주김치를 결합한 미식축제가 열린다.

제4회 2019 전주 막걸리아리랑 김치쓰리랑 문화축제가 16~17일 양일간 전주 삼천동 막걸리 거리(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712)에서 개최된다.

'막걸리김치 문화축제'는 전주김치 체험관광과 유용화 전략의 한 축으로 우리 삶을 친근하게 떠밀어준 막걸리와 융합하여 김치와 막걸리의 도시전주의 가능성을 실증하는 축제다.

이번 '막걸리김치 문화축제'는 지역 화합을 위해 삼천동 주민과 막걸리 골목 상인이 함께 만들어 가는 축제로, 전주민의 맛과 멋, 흥과 정이 넘치는 삼천동 막걸리 거리의 활성화로 전주의 대표적 관광브랜드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축제는 사)전라북도음식문화관광진흥원이 주최하고, 6대 韓字(韓字)를 기반으로 하는 韓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확산으로 세계에 보급할 에너지 플랫폼 "이러는 미션으로 막걸리와 김치 관련 미식축제, 한식산업화 연구모임, 학술포럼 및 세미나 개최 로컬 지부 설립 등 역동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문화국제협회(이사장 김관수)가 주관한다.

이번 축제의 특징은 막걸리 토크쇼, 막걸리김치 전국노래자랑, 한복미인 선발대회, 막걸리 마당극, 전국 막걸리사진 촬영대회, 막걸리와 김치가 무익하는 문화체험 및 공연, 한국의 전통문화 체험 및 전시 등이 준비되어 문화를 즐기고 체험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다양화하여 축제의 질을 높였다는 데 있다.

한문화국제협회 김관수 이사장은 "이번 '막걸리아리랑 김치쓰리랑 문화축제'는 막걸리와 전주김치를 결합한 융합테마로 韓문화 콘텐츠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개발·보급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다. 민간단체가 현장경험을 통해 책임과 열정을 가지고 진행하는 한식의 산업화와 막걸리의 세계화를 위한 축제이다. 한문화국제협회의 당면한 1차 목표는 세계 인구의 5%를 한식 마니아와 막걸리의 세계화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포부를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경찰, 수능 특별교통관리

2020년도 수능에서는 수능 당일, 수험생들의 고생을 덜어주기 위해 전북경찰의 배려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경찰청은 전북도내 13개 시·군 61개 시험장에서 1만 9천여 명이 응시하는 2020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 안전관리를 위해 오전 8시 10분부터 입실완료시까지,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0분 시험실까지 특별교통관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320명과 모범운전자 등 자원봉사자 96명과 함께 순찰차 등 장비 145대를 배치해 수험생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능 당일은 시험장 주변에 교통경찰을 집중배치 하여 소동위주로 교통관리하고 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시험장 주변에는 불법 주차 등 관리하여 시험장 출입로를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총경로4가 등 25개소에 '빈차수험생 태워주기'를 운영을 통해, 112순찰차·싸이카 등을 활용해 수험생 먼저 태워주기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도움이 필요할 경우 112로 전화를 하면 즉시 경찰관들이 출동해 도움을 줄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어 듣기평가 시험 시간(13:10~13:35, 25분간)에는 인근 공사 중단 및 택시·버스 등의 경유기 사용 자제를 요청하고, 대형화물 차량 우회 조치 등을 통해 소음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석현 전북경찰 교통안전계장은 "대학수능능력시험은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한 행사인 만큼, 시험이 무사히 치러질 수 있도록 대중교통 이용 등 도민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정다운 기자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 신속대응체제 가동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종합대책 추진... 내달 15일부터 3개월간 상황실 운영 등

전주시가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수도계량기 동파관리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했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오길중)는 동절기 계량기 등 수도시설을 완벽하게 관리해 시민들의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수도계량기 동파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맑은물사업본부는 수도계량기 동파 사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12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3개월 동안 휴일 없이 급수과장을 상황실장으로 4개반 9명으로 구성된 겨울철 동파관리 상황실을 운영,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및 복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특히 일일 수도계량기 동파발생 개수에 따른 단계별 비상복구체제를 마련해 비상시 급수공사 대행업체의 협조를 얻어 신속하게 교체하고, 상수도 시설업체 등과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동파된 계량기를 신속히 교체해줄 계획이다.

맑은물사업본부는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다가가기 전인 이달 말까지 동절기 계량기 동파 방지를 위해 각종 매체를 통해 동파방지요령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동파예방요령안내 전단지 3만5000매와 보온용 비닐덮개 3만매를 제작해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수도점검원 등을 통해 배부·설치키로 했다.

나이가 기온 급강하(영하7°C 이하)가 예상 될 경우에는 사전예방 조치

로 과거 동파가 발생했던 세대를 중심으로 동파 취약 세대를 대상으로 동파 예방 안내문을 발송(SMS)하는 등 사전 예방에 주력키로 했다.

오길중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각 가정에서는 계량기 함 내 현수나 에어밸브(일명 뽕뽕이) 등을 채워보온해 주시고, 기온이 급강하 하거나 보온을 하더라도 동파 위험이 있을 시는 수도꼭지를 약간 열어놓고 수도물이 흐를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해달라"면서 "만약 수도계량기 동파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급수과 내 비상근무 상황실(063-281-6861~5)로 연락을 주시면 신속히 교체·치리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도행정서비스를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전북도·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는 13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금호건설을 찾아 지역 현황과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해 대형건설사 '노크'

전주시·전북도·전건협, 민간건축공사 시공사 본사 방문

전주시가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률을 끌어올려 어려움에 처한 지역건설 산업을 살리기 위해 전북도,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와 손을 맞잡았다.

전주시·전북도·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는 13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금호건설과 한화종합건설의 서울 본사를 방문했다. 민간합동으로 대형건설사 본사를 방문한 것은 지난 9월 현대산업개발과 현대건설 본사를 방문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다.

이 자리에서 시는 지역 건설업체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대형건설사와 지역건설업체의 상생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지역업체 하도급률 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형건설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전북도는 대형건설사의 도내 사업 추진 시 지역 중소기업과의 상생에 요청했으며,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도 전북지역 건설공사에는 지역 하도급 업체가 참여업체 입찰에 반드시 참여할 수 있도록 우선 배려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윤상 기자

범죄피해자 지원 서비스 성과 '두각'

군산경찰서, 생계비·의료비·이사비 등 모두 5000만원 지원

군산시 협조 받아 시청 등에 홍보영상 내보내 시민 공감대 이끌어

군산경찰서(서장 임상준)가 살인·폭행 등 범죄 피해자를 위한 지원 서비스를 운영해 큰 힘이 되고 있다.

군산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1년 동안 모두 120여명의 범죄 피해자들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이사비용 등 모두 5천만원을 지원했다.

또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은 물론 12회의 심리 상담과 법률지원 서비스까지 해주는 등 범죄피해 시민들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아내를 폭행 살해하고 체제를 10시간 이상 감금한 사건의 경우 피해전담 경찰관이 미국인 피해자를 위해 미 대사관 협조를 받아 가족에게 피해내용 통지는 물론 혼수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치료비를 지원했다.

또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폭행을 위해 숙소지원, 살인 현장 장 관교체 등 적극적인 피해자 지원 활동으로 2천여만원을 지원받도록 도왔다.

이와 함께 군산시의 협조를 받아 유동인구가 많은 시청과 동사무소 LED 전광판에 범죄 피해자 지원 홍보영상을 내보내 경찰의 인권,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었다.

임상준 서장은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어려운 시민들을 돕는 건 경찰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라며 "대부분 사회적 약자인 범죄 피해 대상자들을 위하여 내실 있는 피해자 회복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범죄신고 112 화재신고 119

전동성당 본당, 130년 역사 최초로 문화공간으로

전주한옥마을에 위치한 전동성당이 건립 130주년을 맞아 본당 내부를 미디어 아트 공간으로 제공키로 하면서 문화관광공간으로 최초로 개방된다.

13일 전주시에 따르면 미디어 파사드 관공벤처기업인 ㈜씨티데이스와 전동성당은 오는 29일과 30일 전동성당 본당 내부에서 미디어 아트 쇼 '빛의 성당 FIAT LUX(빛이 있으라)'를 선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전주시가 후원한 이번 공연은 지난 2015년 지역특화콘텐츠개발사업 최우수 과제에 선정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 등 성과에 근거해 올해 지역특화소재콘텐츠개발지원사업으로 선정된 공연이다.

전동성당 본당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미디어 아트 쇼 '빛의 성당 FIAT

씨티데이스·전동성당 29~30일 본당 내부서 '미디어 아트 쇼' 선보

LUX'는 지난해 종남문과 전동성당 외벽에서 선보인 미디어 파사드 공연의 시종2 성격으로, 곡선의 미가 담긴 전동성당의 아치형 천장을 스크린 삼아 상하좌우 180도 파노라마 뷰로 구현해낸 공연이다.

이 공연은 바티칸 시국 시스티나 성당에 그려진 미켈란젤로의 천장화(La volta, 일명 천지창조)에서 모티브를 얻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이다.

특히 이번 빛의 공연으로 비전된 요소를 혼합한 로마네스크 양식의 웅장함을 간직한 문화와 예술의 아

이므로 손꼽히는 전동성당이 건립 130주년을 맞아 처음으로 본당이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문화관광 공간으로 개방될 예정이다. 총 7막으로 구성된 이번 공연은 15분간 진행되며, 오후 7시 30분과 8시, 8시 30분 하루 3차례,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공연은 신의 한마디에 우주에서 지구로 온 빛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돼 인간의 문명이 빛이낸 타락과 전쟁, 자연 재앙에 무릎 꿇으며 신의 심판을 받는 것으로 절정에 이른다. 또, 폐허가 된 땅에서 화해와 인류애가 꽃피우고, 에필로그로 전주 근대사 100년과 6인의 성인(聖人)의 이야기도 담길 예정이다.

일반석 예매는 문화N티켓(www.culture.go.kr/ticket/main)에서 할 수 있으며, 본 공연 당일 현장관매도 이루어진다. /김윤상 기자

전북경찰, 2019년 집회·시위 자문위원회 회의

전북지방경찰청은 13일 회의실에서 조용식 전북청장과 김병이 위원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하반기 집회시위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전북경찰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보호 활동'을 위한 '정성치안 활동'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집회의 자유를 최

대한 보장함과 동시에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토론 등이 진행됐다.

김병이 자문위원장은 "집회 개최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기본권이지만 도로 상 집회나 행진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또 다른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

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성숙된 집회문화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조용식 청장은 "집회의 자유권과 국민의 기본권이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전북경찰은 인권과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둘 것"이라며 "경찰이 있어 편안하고 인심이 되는 행복한 전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다운 기자